

우려되는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기고

강현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상식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핫이슈가 되고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출신, 인종, 언어, 피부를 이유로 고용, 교육 및 직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다.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동성결혼 합법화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뿌리인 전통 윤리에 역행하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 창조 질서에 반할뿐 아니라 남녀, 남편과 아내라는 성적 기준을 뒤 흐드는 오류이며 악법중의 악법으로 등극할 태세이다.

우선, 동성결혼 합법화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행해온 유교적 질서를 혁신(?)하는 아주 고약한 시도이다. 성적으로 구별되는 1남 1녀가 사랑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간의 모습이 관습상의 결혼과 가정, 사회와 공동체간의 변형으로 이어져 결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인간 번영의 재원이 되어왔다.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스런 화학적 결합이 아닌 동성간의 이율배반적인 물리적 결합은 우리 사회가 이

후 맞이하게될 혼란과 갈등이라는 수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될것이 자명하다.

동성결혼은 결혼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게 되는 사회적 인본적 차원의 국가적 어젠더로 단순히 입법주의자들의 밀어붙이기식 제정으로는 결코 안될 사안이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고 들어왔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소수 성지향 자들에 대한 권리와 자유 존중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대의민주주의와 그 사회에 통용되는 수천년 역사의 관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사회와 국가 통치에 반하는 법제정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안정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자녀의 양육이 성장 과정에 긍정적 영향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일반 가정과 다른 동성 부부의 양육 과정에서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일 감수성, 의지, 사고 등의 자아형성은 지극히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고 무엇이랴!!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는 창조의 질서에 크게 반하는 위법 중의 위법이다. 여타 종교에서 인간의 결혼제도를 통한 가정의 성립은 가장 신성시 되는 보편적 사회의 구성요소 존속이다. 이러한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사상적 혼란을 도래함은 물론 소수자의 사회적 자아와 충돌하는 국가적 사회적 심리적 재난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으로 제정

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근간인 다수의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에 대한 묻지마식 합구는 자유사회의 자유에도 역행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말것이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을 차별주의자로 색칠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편가르기로 전개되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법 약육이 되기 마련이다.

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성적 소수를 차지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고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별물 제정은 이들의 인간적 보편적 권리를 초월하는 문제중의 문제이다. 이는 지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역사와 전통을 뒤흔들 가궁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도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 가정 질서의 붕괴를 넘어 인간 창조의 대질서를 위반하는 초법적인 사안으로 사회와 국가적 도탄에 빠질 위험천만한 악법인 요대난 대참사로 이어지리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제발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 발의자들과 지지 정당들에게 고하고 싶다. 차별과 평등의 문제가 아닌 결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회도서관 호남관 선택 아니고 필수다

최첨단 플랫폼 구축에 최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국회도서관 호남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회도서관 분관을 호남권역에 신설해 광주의 역사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 지식 자산을 분산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화와 노벨상의 도시 광주가 국회도서관 호남관 유치를 통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길 기대한다.

국회도서관 호남관 유치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당장 기존의 규제완화나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식거점 형성을 통해 복지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지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이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알 권리'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시킨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맞춰 광주를 인문 도시로 바꿔 '제2의 한강'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날 토론자들도 호남거점 도서관

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 박노수 교수는 "국회도서관은 정보 허브와 지식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호남분관이 지역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노우진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립도서관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식격차해소, 연구조사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연구·전시·보존을 위한 센터를 비롯해 공연 등이 어우러진 '빛고를북합문화관'을 제시했다. 김승봉 추진위원이 제안한 AI기반 첨단 지식 플랫폼 구축도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국회도서관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광주에 특화된 호남분관을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도서관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기술을 바탕으로 광주에 설립되는 호남분관을 디지털 도서관의 거점으로 키워낸다는 의미도 크다. 지식정보화시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더 이상 외면 안돼

자랑스런 역사 정부가 밝혀내야

전남대 김재기 교수 연구팀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새롭게 발굴했다는 소식이다. 올해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5년. 수많은 학생들의 분노가 일제에 대한 저항의 거리시위로 불타 오르면서 많은 학생이 고통을 겪었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는 늘 새롭다.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까지 외면한 소중한 역사를 발굴한 김 교수 팀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대한민국의 기관지 '신한민보' 1930년 3월13일자 보도와 하와이한인협회 '공보 5호'다. 김 교수팀이 이를 분석한 결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250여 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하와이한인협회를 결성하고, 분열된 한인단체들을 통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한민보 보도에 따르면 1930년 1월13일 하와이 오아후섬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알려지자 한인 29명이 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

로 단결하자는 취지의 발기인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참여 인원이 8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하와이한인협회의 1대 주의와 3대 정강도 찾아냈다. 이 가운데 1대 주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대한독립운동을 추진하다'였다. 3대 정강 중 제1조는 임시정부에 집중하고, 제2조는 운동의 방향은 최후의 1인까지 분투하고, 제3조는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였다. 신한민보에 나온 발기 취지문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미년 3·1만세운동 이후 제2차 독립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또 신한민보에 나온 하와이 한인협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을 분류한 별도의 자료도 만들었다.

95년 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호남의 청년 학생과 수많은 호남 민중이 이뤄낸 거국적인 독립운동이기도 하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 써내야 한다. 광주와 호남의 자긍심이면서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의 발자취를 민간에만 의존한 채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2024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WS)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다저스는 시리즈 5차전에서 뉴욕 양키스에 7-6 역전승을 거두고 4승1패를 기록하며 역대 8번째 정상에 올랐다. 뉴시스

서석대

'시장에서 한 할매니가 땅 바닥에 바구니를 놓고 돈을 세고 있었다. 그때 한 도둑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도둑이 훔쳐간 것은 돈이 아니고 낡은 바구니였다'. 1920년대 독일에서 전해 오는 유명한 일화다.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마르크화(貨)는 가장 천대받던 화폐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돈을 마구 찍어내 휴지보다 못할 정도였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독일은 1924년 액면가 100조 마르크짜리 지폐를 발행했다. 맥주 한 잔이 2000억 마르크였던 시대, 도배도 벽지 대신 지폐로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혔다고 한다.

1000조 원짜리 동전도 등장할 뻔 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상환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000조 원에 이르는 '백금동전'을 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재무부가 1조 달러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해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연준을 통해 1조 달러어치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신용을 이유로 동전 발행을 거부했고 1000조 원짜리 동전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고액의 지폐와 달리 동전은 대부분 금액이 적다. 그렇다



동전 한 닢

고 동전이 하찮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동전은 단순한 교환의 수단을 넘어,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품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화폐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미국도 1센트짜리 페니부터 100센트짜리 달러까지 다양한 동전이 유통된다. 특히 10센트짜리 닢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은 동전으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미국 조폐국이 발행한 10센트짜리 동전 '다임' 한 닢이 최근 경매에서 7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고 한다. 1975년에 만들어진 이 동전은 조폐국에서 수집용으로 철자 S를 빼고 발행한 세상에서 두 개밖에 없는 동전이다. 지난 달에는 1923년 사망한 덴마크의 한 수집가가 일평생 수집한 동전을 경매에 부쳐 221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영국의 한 농장에서는 1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던 은으로 만든 동전 더미가 무더기로 발견돼 영국인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일상에서 통용되는 몇 푼 안되는 동전. 그 동전 한 닢도 세월을 버티고, 세상을 돌아 보면 언젠가 귀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렇게 유쾌할 수 없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